

민주 “고발사주, 거악의 설계자 누구인지 밝혀야”

손준성 영장에 ‘윤석열 정조준’... “선거방해죄 징역 10년감”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특검 주장에는 “거짓과 왜곡의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검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뻔뻔하게 넘어가기엔 문제가 너무 크다”며 “민주 정부 아래 기생하면서 불법처럼 자란 윤석열 대검의 남은 싸움 모두 잘라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맹공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에 언급된 유튜브 채널을 사건 당시 모니터링했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사정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이라며 “윤석열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에 공유하고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측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불어세했다.

당 고발사주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며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속도를 낼 기분이 마를법”으로 밝혔다. 황윤하 의원은 이날 고발사주 TF 회의에서 “더 공금한 건 손 검사의 뒷배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

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출신의 박찬대 의원은 논평을 내 “윤 전 총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거악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올 것이 왔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시간 문제였다”며 “윤 전 총장으로부터 어떤 지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형법 위반, 선거방해죄로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의혹’ 공격에 대해서도 “거짓과 왜곡으로 집결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반격을 이어갔다. 특히 야권이 제기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쌍방 그룹의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에 대해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두 사람이 사담을 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 없는 분들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당 화천대유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한 회사가 쌍방을 자회사로,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쌍방을 계열사의 사외이사”라며 “전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없는 이 후보를 연결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국감장에서 계속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권의 지속적인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국민의힘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못 하면서 특검만 주장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조웅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검이 무슨 ‘토르의 망

치’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검찰이 한 군단쯤 된다면 특검은 대대급 규모인 셈”라면서 특검 요구를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靑 국감도 ‘대장동 난투’...野 “특검받아라” 與 “공작정치”

야 “文 대통령 결단해야” 여 “윤석열 면직 했어야”

국회 운영위원회의 26일 청와대 국정감사도 여야 간 대장동 공방전으로 흘렀다.

국민의힘은 검경의 ‘정치적 수사’를 주장하며 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특검 찬성 응답이 우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들을 앞세워 여론전도 병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제기를 ‘공작 정치’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동시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을

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수용’ 문구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 여야간 실랑이가 일면서 파행, 오후 3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맞불 성격으로 ‘민생국감’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날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이 만난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사법당국의 수사책임자가 수사 범주에 있다고 한 사람 (이재명 대선후보)을 어떻게 대통령이 면담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가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배임 혐의로 지목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 “환수조항은 원래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용하지 않는 게 나았다. 그 조항을 넣으면 손해대 같이 분담하자고 해서 고정이익이 삭감될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이 후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배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랜섬웨어 범죄 부처간 협력 시스템 미흡

이형석 국회의원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섬웨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침해사과대응팀협의회(CONCERT)가 공동 연구·발표한 ‘2021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878만원 수준이던 국내 랜섬웨어 평균 피해액이 올해는 2억 6083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는 2015년 3800억원이었던 랜섬웨어 범죄피해액이 올해는 23조6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랜섬웨어 피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 2019년 랜섬웨어 피해신고는 39건인 반면,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 신고 건수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기관과 주무부처가 기본적인 피해 현황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흡한 법적 토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밀보호법’은 통신사나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주요정보통신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인터넷진흥원’ 중 선택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기관들 간의 상호 정보 공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거나 피해확산 방지와 범인 검거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랜섬웨어 범죄 발생 사실의 공유, 사고 대응 과정에서 유기적 협력 의무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밀 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 의결

사실상 ‘4지 선다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원회장인 성일종 의원은 본경선 문항에 대해 “가상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했

다”고 밝혔다.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질문 받은 응답자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장한 ‘가상 양자대결’보다는 흥준표 의원이 요구한 ‘4지 선다’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데먼 “이재명과 원희

룡,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흥준표 후보(가나다 순)가 대결한다.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1번 원희룡, 2번 유승민, 3번 윤석열, 4번 흥준표 중 고르시오”라는 식이다. 외경상으로는 윤 전 총장과 흥 의원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이지만, 사실상 흥 의원이 요구한 ‘4지 선다형’에 무게를 둔 셈이다.

본경선 일반여론조사는 내달 3~4일 실시되며, 1~4일 진행되는 선거인단 모바일·전화 투표 결과와 각각 50%씩 합쳐 5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적벽돌외벽 스타라부즈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경경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경 산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중 1천5백여주 조성 가능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8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핑장, 휴양지
능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힐즈빌) 길 건너편 동명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증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2022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인터넷으로 작성)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입학)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제출장소 : 산업대학원 행정실(공과대학 4층관 202호) • 제출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원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형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 일시	2021. 12. 7.(화) 10:00 ~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한 장소(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12. 22.(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과정(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정보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트레킹 산행, 염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주차장 06:00 * 다음 카페 광주지산악회 ☎ 010 7794 6920

산행안내
11월14일(일)
▲광주지산악회 11월14일(일) 경북 청송 우왕산&절골, 주산지